

“모험정신으로 연기...인생은 도전이잖아요”

KBS 2TV '닥터 프리즈너' 배우 김정난

“SKY캐슬 '프리즈너' 흥행 2연타에 어깨 무거워
아직 싱글...결혼은 글썄, 연애는 열려 있어요”

JTBC 'SKY 캐슬' 이명주부터 KBS 2TV '닥터 프리즈너' 오정희까지, 배우 김정난(본명 김현아·48)은 최근 흥행작마다 초반 시청자를 잡아끌며 대활약을 했다.

21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정난은 출연작 연속 흥행 소감을 묻자 “드라마는 저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라며 “드라마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도 작품 덕을 봤다. 운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어깨가 참 무겁다”라며 “연기만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고 미궁에 빠지는 것만 같다. 관객 수준도 높아지고 질 높은 콘텐츠도 많아진다 보니 압박을 느낀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긴장과 반전의 연속이었던 '닥터 프리즈너'에서 수감된 재벌가 사모님 오정희와 검사 정의식(장현성 분)의 공조(?) 로맨스는 확실히 시청자들에게 습득감과 웃음을 선물했다.

“장르극에는 쉬어가는 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정희가 처음부터 희극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제가 몇몇 코믹한 대사들을 ‘덱서’ 물었더니 작가님께서도 그 방향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웃음) 본의아니게 감초가 된 셈이죠. 물론 정의와 정미사의 로맨스도 처음엔 없었죠.”

그는 “현성 오빠와는 예전에 부부 역할도 해서, 촬영장에서 친하게 ‘공냥공냥’ 했는데 그게 작품 안에서 보였나 보냐”라며 “우리 작가님께서 또 놓치지 않고 미끼를 던져주시기에 몰랐더니 진짜 로맨스가 됐다”라고 웃었다.

김정난은 이어 “중년 남녀가 오글오글

한 대사를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신 시청자가 많아 감사했다”라고 인사했다.

김정난은 'SKY 캐슬'과 '닥터 프리즈너' 등 긴장감 가득한 장르극들이 최근 흥행하는 데 대해서는 “예전에는 긴 연속극에 익숙하다 보니 비슷한 소재, 평면적인 막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의 좋은 작품이 경쟁적으로 나오는데 덕분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개성 넘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제 포레 여배우들이 그렇지만, 이런 실력적 작품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누구의 이모, 고모 이런 역할들만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제소리를 낼 수 있는 캐릭터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정난은 이듬해 신인상을 받았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굵직한 작품들에 출연했다. 그러면서도 사이사이가 공백이 있었다.

그는 “일이 안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너무 희극적인 역할이 반복돼 일부러 휴식을 취했을 때도 있다”라며 “나는 무겁고 밀도 있는 역할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럴 기회를 못가져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공연 무대에 섰다. 그러다 보니 'SKY 캐슬', '닥터 프리즈너' 같은 작품도 만났다”라고 했다.

데뷔 30년을 앞둔 그의 KBS 공채 동기로는 이병헌, 손현주 등이 있다. 이들은 다음달 오랜만의 동기 모임을 연다.

김정난은 “완전 ‘아기들’일 때 만나서



이젠 다들 30년 차가 됐다”라고 웃으며 “여배우 중에는 일찍 결혼하고 출산해 경력에 단절된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일과 결혼을 맞바꾼 셈”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싱글’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너무 냉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그는 결혼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좋

은 친구처럼 길게 가고 싶어요. 연애는 열려 있습니다. (웃음)”

어떤 배우로 남고 싶느냐는 물음에는 역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다.

“SKY 캐슬과 '닥터 프리즈너'를 하면서 이런 캐릭터도 시청자들이 사랑해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험 정신으로 연기하려고요. 인생은 도전이잖아요.” /연합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 특집 '봉하마을에서 온 편지'



KBS 1TV 내일 밤 10시 방송

KBS 1TV는 오는 23일 밤 10시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특집 '봉하마을에서 온 편지'를 방송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8년 봄 노 전 대통령이 귀향 후 일상을 담은 70시간 이상 분량의 61개 테이프 원본을 활용해 노 전 대통령 생전을 되새겨본다.

11년 전 촬영 당시와 지금의 봉하마을을 비교하고, 촬영 당시 심은 장군차 나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등 소소한 환경 변화도

엿본다. 봉하마을을 떠난 사람들과 새롭게 찾아온 사람들,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된 노 전 대통령 묘소와 생가터, 사저 등도 소개된다.

이밖에도 노 전 대통령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농촌 살리기, 환경 지킴이 활동 등 계획과, 2008년 방송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사연도 확인한다.

제작진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각과 이상을 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또는 10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편지처럼 구성했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합뉴스

싸이, 2년여 만에 컴백...7월 정규 9집 발표

'2019 흠뻑쇼' 서 공개 예정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2·사진)가 오는 7월 2년여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피에이션은 21일 “싸이가 7월 초 정규 9집을 발표한다”며 “새 앨범은 지난 2017년 5월 발매한 8집 '4X2=8' 이후 2년 2개월만”이라고 밝혔다. 9집은 지난해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싸이가 올해 1월 설립한 피에이션에서 처음 내는 신보다. 또 현아와 제시, 이던이 합류한 이 기획사에서 첫선을 보이는 앨범이기도 하다.

앞서 싸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정규 앨범을 낸다면 9집인데 일단 이름 추천받아보겠습니다”라고 앨범을 준비 중임을

을 암시했다. 그가 '싸2, 3파이, 싸집, 싸이파이브, 싸이6집, 7집싸이, 4X2=8'까지 지난 앨범 제목을 잇는 9집 타이틀을 공모하자 많은 누리꾼이 '싸이9, 9다싸이, 싸이9라, 9싸인생' 등 기발한 제목을 제안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싸이는 9집 신곡을 올려줌 그의 브랜드 공연인 '2019 흠뻑쇼'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티켓은 6월 11일 예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벵게(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10 세상의 모든 다큐	00 12 MBC 뉴스 25 더 벵게(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절대 그이(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2019 양곡국가대표 평가전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2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차종우돌 한국 유망기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침착한 주말(재) 55 차종우돌 한국 유망기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원소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재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5.18 39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두개의 일기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습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 타요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1~5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15 꼬마하어로 슈퍼팩
07: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문어병채와 스위스식 김자전〉	19:5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미래교육 플러스(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책과 판(재)	14:30 낭랑고 나라, 코코몽	〈두근두근 이란 3부 신(新) 페르시아 로드〉
08:45 랄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부엌기행 3부 낭랑고야 미안해〉
09:30 몰랑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15 출동! 슈퍼왕스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뿌우(재)	23:5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체육 고추장 볶음과 체육 간장 볶음〉	17:15 엄마 까투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18일 己未)

<p>子 36년생 전혀 판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48년생 상호적이라야만 유익하다. 60년생 급한 것부터 조처 되었을 때 실리를 도모할 수 있다. 72년생 지속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84년생 재물운이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6, 98</p>	<p>午 42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54년생 과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66년생 지금 가동하기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78년생 중요한 일이니 확실히 해두어야 후환이 없다. 90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07</p>
<p>丑 37년생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49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61년생 중보한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일신 이 안락하니 세상일이 태평하다. 85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6, 77</p>	<p>未 43년생 몸은 고달프지만 보람을 느낄 것이다. 55년생 불잡아 두는 것이 득이 되리라. 67년생 예상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오리라. 79년생 바쁜 일상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91년생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접근성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64, 14</p>
<p>寅 38년생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성국이다. 50년생 단순해야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62년생 현실화 되는 시기가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74년생 강구한다 해도 차질은 없었다. 86년생 의외로 더디게 추진되는 형상이 비친다. 행운의 숫자 : 47, 02</p>	<p>申 44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56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에 한계가 보인다. 68년생 어떤 입장이 될지 모르니 빈틈을 보이지 않음이 옳다. 80년생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92년생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행운의 숫자 : 40, 08</p>
<p>卯 39년생 오랫동안 진행 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 했다. 51년생 출동이 생길 수 있다. 63년생 판도를 좌우 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75년생 앞에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리라. 87년생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2, 63</p>	<p>酉 45년생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주력함이 현명하다. 57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달라고고 있다. 81년생 길흉이 교차하니 맹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93년생 능률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9, 84</p>
<p>辰 40년생 부작용이 속출할 수도 있으니 절제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다. 64년생 목표에 성큼성큼 접근하고 있다. 76년생 사려 깊은 선택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88년생 미래를 위한 희망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21</p>	<p>戌 34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46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58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70년생 뒷불이 남아 완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82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83, 06</p>
<p>巳 41년생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53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65년생 부분에 한정 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77년생 관점을 달리한다면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89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2, 55</p>	<p>亥 35년생 미련없이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47년생 상대의 깊은 의중은 따로 있으나. 59년생 물처럼 스퍼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71년생 많은 이익이 따른다. 83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유 지해 나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05</p>